

겨레말큰사전 제35호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겨레의 창 · 겨레말 편찬 현장 · 말에 얽힌 이야기 · 겨레말 살아

■ 겨레말이 만난 사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박종국 회장

겨레말큰사전 사업회는 565돌 한글날을 맞아 오랫동안 묵묵히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이끌어온 박종국 회장을 만나 기념사업회의 세종대왕 연구 사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우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 및 국학의 발전을 목표로 1956년 창립되었는데요, 역사가 깊은 만큼 사업회가 해온 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기념사업회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효시적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세종대왕기념관을 건립하여 세종에 대한 업적과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시로는 조선왕조실록 번역 작업을 사업회가 1968년에 제일 먼저 착수하여 450책 중 230책을 번역하였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먼저 한글 알고 있지만 그곳은 1972년에 시작했습니다. 고전 중에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인데 이런 고전 국역을 많이 했고, 큰 책들도 많이 펴냈습니다.

세 번째로는 1971년에 한글 기계 글자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말과 문자가 제대로 구실을 하려면 속도가 중요한 것이므로 기계화, 정보화 사회에서 한글이 중요함을 알고 연구를 했죠. 그때는 타자기 연구가 없으므로, 타자기 기계화 연구와 자판까지 연구했습니다. 그 이후 글자체 개발까지 왔습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세종대왕기념관과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세종대왕에 관한 문헌과 유물을 보존하고 있는데요. 세종대왕기념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옥외 전시실에 있는 수표석
- 1441년(세종23) 정계천의 물높이를 재기 위한 수표교에 세웠던 수위 측정기로 보물 제838호로 지정되어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하나의 주요 사업으로 기념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념관은 1960년대에 건립하여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50년 넘으면 문화재로 지정되는데, 건물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종대왕기념관 1층 전시실은 일대기실, 한글진열실, 과학진열실, 국악진열실, 국악진열실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념관 옥외 전시실에는 세종성왕기념탑, 수표석, 세종대왕 신도비 및 구영릉 발굴 석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 당시에 다른 박물관이나 기념관들은 유물이나 소장품 등을 전시하는데 그쳤지만, 우리 기념사업회는 기념관 2층에 연구실을 두어 세종대왕에 대한 연구 사업을 시작 했어요. 제일 먼저 세종대왕 전기하고 세종에 관계된 어록, 자료 등을 만들면서 세종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세종탄신 600돌을 기해 65명 학자들과 함께 세종에 대한 문화사를 집대성하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기념관 뿐만 아니라 부설기관으로 세종학술연구원, 한국학 연구원, 한국글꼴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한국글꼴개발연구원은 주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지요. 개발한 서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한국글꼴개발원에서는 글꼴 연구를 통해 한국글꼴용어사전, 글꼴현황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글꼴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글꼴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서체로는 교육용 본문 글자본부터 출발해 바탕체, 돋움체, 고딕체, 옛 문헌에 대한 글자본을 만들고, 그것을 컴퓨터용 서체로 개발도 했습니다. 또한 서예가 정주상 선생의 필기체를 비롯하여 서예 대가들의 서체들도 개발하였습니다.

세종대왕 관련 도서 및 조선왕조실록 등 고전국역서 간행, 국학자료 영인 등 꾸준한 연구를 통해 방대한 양의 책을 발간 하셨는데요. 그 중 한국고전용어사전 대사전(2001)은 어떤 사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1권을 시작으로 5권으로 증보한 한국고전용어사전은 우리나라 문헌에서 나타난 한자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한 것이에요. 실제 우리 조상들이 쓰던 우리문헌에 나타난 한자 용어를 되도록 정확하게 출전을 밝히고 주석을 달아 놓은 것이 특징이에요. 이 한국고전용어사전은 일반 국어사전에 들어간 품사는 넣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기념사업회 일을 맡게 되신 건지요. 또한 그동안 어려운 점도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관계한지가 벌써 50년이 넘었고 회장직을 맡은지도 1991년부터니까 20년 정도 되었네요. 초창기부터 정부로부터 연구 사업비(국역 사업비) 이외의 운영비는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문화 사업은 아직까지 하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죠. 저를 포함한 정년퇴임한 교수들이 무보수로 연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고충이 많아요.



▲ 박종국 회장

565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세종대왕기념사업회도 한글관련 행사로 바쁠 실 것 같은데요. 세종 글짓기 대회(36회)를 비롯하여 외국인 한글 글씨 쓰기 대회(12회), 한글 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7회), 한글 글꼴디자인 공모전(19회) 등 매년 여러 행사를 개최하고 계신데요. 이번 한글날 관련 행사로 어떤 행사들이 개최되는지 소개해 주세요.

매년 한글날을 맞이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76년부터 꾸준히 해온 <글짓기 대회>는 벌써 36회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 <글짓기 대회>는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처럼 꾸준히 개최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월 6일에는 <외국인 글씨 쓰기 대회>가 개최되어, 연필로 외국인들이 글씨를 쓰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총 900만원의 상금이 걸린 한글서체를 개발을 위한 <한글 글꼴디자인 공모전>과 한글을 활용하여 유형, 무형의 상품을 만들어 공모하는 <한글 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등이 시상과 함께 기념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사업회를 오랫동안 이끄신 경험으로 겨레말큰사전 사업회에 조언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세종학 연구 단지를 만들어 세종대왕기념관 부속기관으로 세종학 연구관과 세종 문화 교육 사업을 해야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종에 대한 사상연구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세종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세종 문화 대사전도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한국고전용어사전도 현재 5책이지만 10책, 20책 정도로 증보하려고 합니다.

사전 편찬 작업이 참 어려운거죠. 독자를 생각 안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어사전이면 국어사전다운 사전이 되어야 하는데, 백과사전도 아니고 어떤 사전은 인명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제는 사전다운 사전이 나와야합니다. 《겨레말큰사전》은 정말 국어사전다운 국어사전으로 편찬되었으면 합니다.

겨레말큰사전 제35호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겨레의 창 · 겨레말 편찬 현장 · 말에 얽힌 이야기 · 겨레말 살이

■ 겨레의 창

· 우리말 겨레말 ·

- 우리말, 겨레말에 대한 생각과 발전 방향, 《겨레말큰사전》에 바라는 글

_ 고경희 / 시인, [사]한글문화연대 대표

"사실 우리는 남한이 어떻게 북한이 어떻게 하는 것은 잘 몰라요. 남한 체제가 어떻게 남쪽에서는 어떤 것을 해도 되고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지, 북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이 문화의, 사상의 중심인지 그런 것은 더더구나 어려워 잘 몰라요. 우리가 바라보는 조국은 그저 하나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 그래서 그리운 나라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가면 나를 꼭 안아줄 것 같은 나라, 우리말이 통하고 편안하게 말해도 알아들어 주는 나라, 그것이 조국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준 말을 눈물 나도록 거침없이 써도 되는 나라, 그저 그 조국은 남이든 북이든 나뉘지 않아요.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거기 그렇게 있어 자랑스러운 나라, 나는 한국 사람이고 조국은 남북 어느 쪽이 아니고 그저 하나예요."

재일교포 한 여고생의 단호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몇 해 전 나는, 반한 감정이 고조된 일본의 재일교포학교에 가 있었다. 등굣길에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 곤옥을 치르고, 매일 누군가에 의해 학교 울타리가 부서지고, 교문에 철조망이 둘러쳐 있기도 하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뜯어내고 학교 안까지 아이들을 데려다 준다던 그 무렵이었다. 그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먹고 자고, 수업하고, 밤새도록 이야기도 나눴다. 그러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동포의 수난을 목격하고 같이 울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바로 전쟁 같았다. 한국인이라는 표시인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은, 적진을 뚫고 나오는 용기였다. 등교하는 아이 중에는 더러더러 교복을 보자기에 싸 와서 교문 안에 들어온 다음 갈아입기도 했다. 나는 나이 어린 선생님들이 교문 앞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과 나누는 뜨거운 눈빛과 눈물의 아침인사를 들었다. 어서 와라 무사히 왔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기숙사의 저녁, 아이들이 나누는 말은 철저하게 우리말이다. 거의 다 부모 세대에 일본으로 건너온 2세 3세인 아이들이라는데 한 마디 일본말도 섞여 있지 않았다.

저녁밥을 먹기 시작할 때, 나는 한 아이에게 뜨거운 국을 건네며 말했다. "뜨겁다 델라 조심해라." 그러자 유심히 들던 한 아이가 옆에 아이에게 국그릇을 건네면서 그대로 따라 했다. "뜨겁다 델라 조심해라." 그러자 그 아이가 또 옆에 아이에게 말했다. "뜨겁다 델라 조심해라." "뜨겁다 델라 조심해라." "뜨겁다 델라 조심해라." 장난하듯 웃으며 소곤소곤 돌림노래처럼 따라 하는 아이들을 보며 의아했던 나는 저녁상을 물린 뒤, 엿돼 보이는 여선생에게 물었다. 선생의 답은 이랬다.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질구레한 어휘들도 목말라서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 들으면 그걸 잊지 않기 위해 되풀이해 써본답니다." 그래서 국어책에서 쉽게 접하는 말이 아닌 내 말이 재미있고 좋았던 모양이라고 했다. 가슴이 먹먹해 왔다.

우리에게 있어, 우리 민족에게 있어 우리말, 겨레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 한 많고 설움 많은 나라 밖 동포들에게 우리말 우리글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가,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할까?

고국에선 물과 공기 같아 휘젓고 오염시키며 합부로 쓰는 우리의 말글이 여기 이 일본 한 구석에서 어떤 잉앗실이 되어 저 아이들을 저토록 치열하게 서로 단단히 묶고 지키고 살아가게 하는가?

다시 우리나라 안으로 눈길을 돌려본다.

여전히 한문과 한자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영어를 섞어 써야 품위와 교양을 갖춘 사람대접을 받는 우리 사회의 제도나 조건들, 국어를 가볍게 여기며 영어교육만 강조하는 정부,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우수 정예라 빠기는 기업 · 언론들에 의해 쉽게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리는 우리말글, 그리고 그들을 향해 목청을 높이고 꼬집어내고 꾸짖어 겨우 한 두 개 바로잡고는 대단한 성과라도 얻은 양 가슴을 쓸어내리던 일들, 이 초라한 실랑이를 과연 이들에게 무어라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 말글로 글을 쓰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대학 때 노교수님 말씀이 우렁우렁 바다를 건너와 가슴에 울렸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학자 관리들이 한문을 빌려 쓰던 시대의 습관에 젖어서 우리말과 우리글을 낮잡아보고 한자로 글자생활을 해야 글과 뜻을 깨닫고, 품격이 높아지는 것이라 우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문명과 상업주의 문화에 기댄 외국말, 일본말의 찌꺼기들이 순수한 겨레말을 죽이고 버젓이 품위 있는 낱말로 사전에 올라 있다.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어는 문화어로서의 지위를 잃고, 고유어에 바탕을 둔 학문과 문명을 일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얼을 간직한 겨레말은 더 많이 국적도 모르는 말에게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 있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겨레가 물려받은 말글 문화를 모으고, 정리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남과 북의 어휘는 물론 지역어 토박이말 또 나라 밖 세계 각 곳곳에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동포의 모국어도 살뜰히 챙겨 생명을 불어넣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숙제가 있다. 하나의 대한민국 남과 북의 깨끗한 정서 속에 오염되지 않은 낱말들을 알뜰히 찾아 그 위상을 높이고 모두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부려 쓸 수 있게 하는 게 제임이다. 그래야 원하지 않는 분단의 오랜 세월 서로 뜻이 갈려 소통이 어려운 우리 겨레를 이어서 통일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국의 맥을 바로 세우고 흩어져 사는 겨레를 한 끈으로 잇는 것은 국어를 왜곡, 파괴하면서 이루려는 뭉뚱그려진 '세계화'가 아니다. 사람이다. 겨레고, 겨레문화이고, 그 겨레가 가진 의식과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다. 우리 핏줄 누구나가 가슴으로 만나는 우리의 말과 글이다. 그리고 나라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은 역사의 고비마다 한 시대를 꿰뚫어 미래를 가능하고 올곧은 길로 이끄는 사람들의 피와 땀이다.

《겨레말큰사전》이 그 오랜 숙원을 풀어내어 나라 안팎 세계 구석구석 동포들의 안방에 자리 잡아, 목마른 겨레의 가슴마다 뜨끈한 역사를 안겨주기 바란다.



! 고경희 !

시인, [사]한글문화연대 대표. 1950년 강릉 출생. 경희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하였으며, 1983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개화」, 「구경꾼은 안다」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아홉의 끈을 풀고」, 「사슬뜨기」, 「창백한 아침」, 「안개구간」이 있다.

겨레말이 만난 사람 · 겨레의 창 · 겨레말 편찬 현장 · 말에 얽힌 이야기 · 겨레말 살이

■ 겨레말 편찬 현장

《겨레말큰사전》 ‘문법형태’와 ‘언어학용어’ 집필 작업

김완서 / 겨레말큰사전 책임연구원

남북의 언어 차이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로인, 려행’과 같은 발음 표기상의 차이에서 시작해 ‘아버지, 동무’와 같은 남북이 기반한 정치 체계의 차이에서 생겨난 말뜻의 차이, ‘얼음보숭이’와 같은 다듬은 말의 차이 등을 쉽게 떠올린다. 이런 일반어에서의 언어 차이와 더불어 일반인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으나 분단 후 전문용어에서의 언어 차이도 상당하다. 더욱이 전문용어는 일반어에 비해 언어 차이가 큰데 반하여 그 차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통일의 준비는 기계적으로 차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문법형태>와 <언어학용어>의 집필에서는 남북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보다는 가급적 그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주안점을 삼았다.

먼저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법형태>와 <언어학용어>의 의미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문법형태 : ‘막-, 짓-, -님, -꾼’ 등의 접사류, ‘-가, -를, -는, -도’ 등의 조사류, ‘-어, -시-, -었-’ 등의 어미류를 아울러 이르는 용어이다.
- 언어학용어 : 국어학과 언어학 일반에서 쓰고 있는 개념어로서 ‘명사, 합성어, 관형사형어미’ 등이 그것이다.

1. <문법형태>와 <언어학용어> 남북 차이의 예

<문법형태>의 경우 남북의 견해 차이로 품사 구분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북쪽은 접사로, 남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조선말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별03 「관」 ① 보통과는 다르게 별난 또는 쓸데 없는. Ⅱ 별 참견 ② ‘별의별’의 뜻. Ⅰ 큰 백화점으로 들어서니 별 물건이 다 있다. ③ (앞붙이로 쓰이어) ‘보통과는 다르게 별나거나 특별한’의 뜻. Ⅱ 별소리, 별맛, 별세상.	별02 「관」 보통과 다르게 두드러지거나 특별한.

이런 경우 남북의 합의가 필요하다. <별>의 경우는 남측안인 <관형사>로만 보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선말대사전》의 ‘접두사’로서의 쓰임과 풀이가 ‘관형사’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게다가 《조선말대사전》에서도 <별>을 관형사와 접사로 구분하여 별개의 올림말로 다루지 않고 한 올림말 속에 넣고 괄호 안에 ‘앞붙이로 쓰이어’라는 풀이를 덧붙였다는 점 때문이다.

<언어학용어>는 동일한 대상을 남과 북이 달리 부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남쪽에서는 학교문법의 용어와 한글학회 용어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		북
학교문법 용어	한글학회 용어	
관형사형어미 ¹⁾	매김풀씨끝	규정토
부사형 ²⁾	어찌끝	꾸밈형
공동격 ³⁾	함께자리	누가토

이런 경우 동의어 관계에 있는 말 중 어느 것을 기본올림말로 보아 뜻풀이를 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겨레말큰사전》에서는 남측 독자들에게 익숙한 학교문법 용어를 기본올림말로 삼아 집필한 후 같은말 정보로 한글학회 용어와 북측의 용어를 제공할 것이다. 한자어 올림말은 고유어계 언어학용어에 비해 남북 모두에서 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기본올림말로 삼아 집필을 하게 되면 한눈에 남남 차이와 남북 차이를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2. <문법형태>와 <언어학용어> 집필 현황과 기대되는 성과

<문법형태 집필팀>과 <언어학용어 집필팀>은 본격적인 집필에 앞서 기초 조사를 진행하였다. <문법형태 집필팀>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겨레말큰사전》에 올리지 않을 올림말 목록과 추가해야 할 올림말 목록을 확정하였다. <언어학용어 집필팀>은 북측에서 발간한 10권의 책을 정밀히 조사하여 최근 북측에서 새롭게 사용하는 언어학 용어를 발굴하였다.

《겨레말큰사전》에서 선정한 <문법형태>와 <언어학용어> 그리고 각 팀에서 기초 조사를 통하여 추가한 올림말 개수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문법형태			언어학용어		
《겨레말큰사전》 선정	추가	합계	《겨레말큰사전》 선정	추가	합계
2,190	575	2,765	2,796	533	3,329

현재 약 80% 정도 집필이 진행되었으며 올해 안에 집필이 모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든 집필이 끝나게 되면 남북의 연구 성과를 응축한 <문법형태>와 <언어학용어> 결과물을 세상에 내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여 그 결과를 겨레 앞에 내놓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의 언어 차이를 자세히 알고 이해가 필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 차이를 남북이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문장에서 용언의 어간에 붙어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 ‘-ㄴ, -는, -던, -ㄹ’ 따위가 있다.

2) 동사, 형용사 따위의 어간에 활용 어미 ‘-아/어, -게, -지, -고’ 따위가 붙어 부사와 같은 구실을 하는 활용형.

3)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가 다른 체언과 ‘서로’ 또는 ‘함께’의 관계에 있음을 보이는 격.

겨레말큰사전 제35호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겨레의 창 · 겨레말 편찬 현장 · 말에 얽힌 이야기 · 겨레말 살이

■ 말에 얽힌 이야기

거시기, 혹은 말들의 잔치

조현용 / 소설가

지금은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없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몇 가지 짧은 말들로도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어른들을 볼 수 있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아이구 형님, 참말로 거시기하요. 거시기하지라?”

“나야 늘상 거시기하지 뭐. 어찌 자네도 거시기하고?”

귀를 쫓긋 세우고 들으며 이 즈음까지의 대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추리가 가능한 것들이다. 그래, 어른들의 말은 어린 내게 이해가 아니라 추리로 짐작되는 그런 말들의 수수께끼였다. 추리해보면 이 정도.

“아이고 형님, 참말로 오랜만이요. 안녕하지라?”

“나야 늘 그렇지 뭐. 그래 자네도 안녕하고?”

그러나 이어지는 말들은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했다.

“근디 형님, 널 모레 성수 거시기가 거시긴디, 어찌 거시기할라요?”

“음마, 거시기 거시가 벌써 거시기가 됐어? 그려, 거시기가 어디란가?”

“저기 월명 거시긴가, 은파 거시긴가? 근디 거시기를 어찌 해야할랑가 모르겠당게요.”

“거시기야, 뭐, 대충 거시기 하든 쓰지. 근디 말여, 거시기 죽어도 거시기한다더만 어찌 거시기를 했대?”

“궁계 말이요. 엇그제 봤을 때만 해도 거시기가 거시기 아니더만요. 글도 거시기 이기는 거시기 없음게요, 이.”

“궁계, 이. 암튼 모르겠네. 그럼, 거시기 하세, 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른들의 수수께끼 앞에서 어린 나는 어쩔 수 없이 도리머리를 흔들어야 했다. 어떤 날에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 기어이 아버지의 바지춤을 잡아끌기도 했다.

“아빠, 삼룡이 아제가 뭐라는데요?”

“뭐라기는, 윗동네 성수 딸내미 결혼한다고 안혀냐?”

“예예?”

나는 자못 궁금해 다시 한 번 말의 내용을 물어보아야 했다.

“아따, 이놈이 왜 근다냐, 이. 저기 성수 딸내미 거시기 안 있냐, 이. 그려, 영미 가가 이번 주에 결혼한다고 어쩔 거냐고 묻누만, 근디 어찌긴 어찌야, 가봐야지. 내가 간다고 형계 삼룡이가 글은 부조를 얼마나 하나고 해서 내가 적당히 하든 쓰겠다고 안 혀냐. 근디 성수가 지 딸 결혼을 그렇게 반대 했어야. 그래서 어찌 허락을 했냐고 나가 물음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해서 내가 맞는 말이라고 함서 지금 안 헤어졌냐, 이. 근디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왜 자꾸 그리 묻는다냐?”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메지 놓고 또 어딘가로 훌훌 막걸리라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는 곳으로 마실을 떠나고는 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 그때 마을 어른들이 쓰는 말들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이름의 상징으로 이루어진 기호가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얻어지는 어울림이었다. 그러나 지금 고향 마을에 ‘거시기’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남아 있지 않다. 대체로 나가거나 혹은 몇몇 남아 있어도 그 옛날 손가락 숫자까지 세세히 알고 있을 정도로 끈끈한 어울림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말이란 이렇게 때때로 상징적 기호 보다 더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말은 한 무리의 어울림을 말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예컨대 거시기 하나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거시기는 단순히 거시기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첫 소설집을 묶을 때 부러 멀어지는 우리말을 잡으려 진동한동 애를 썼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동티라도 붙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말은, 말들은 저근듯 멀어졌다. 참말이지 말은, 우리 겨레의 말은 들판을 달리는 말과 같았다. 거시기 하나로 소통하던 마을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겨레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겨레말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딘지 뿌리도 알 수 없는 말들이 지천이다. 그걸 나무랄 생각도 나무랄 입장도 아니라는 걸 나는 잘 안다. 말이란 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섭섭한 마음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겨레의 말이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웃음과 여유로움이 가득한 우리 겨레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셈이다.

어떤 이는 우리 겨레의 정서가 한(恨)의 정서라고 하지만 나는 이 말에 감히 반대를 하고 싶다. 어찌하여 우리 겨레의 정서가 한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겨레의 정서는 어울림의 정서이다. 북방의 어느 민족이 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터를 잡고 처음 한 것이 바로 꿈을 모시는 부족과의 어울림이었다. 물론 그때 어울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호랑이 모시는 부족과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겨레는 유럽의 신화처럼 싸움과 전쟁을 기록하기 보다는 어울림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그것을 세상 다스리는 이치로 삼았다. 이것이 바로 서로 어울려 널리 이름기를 바랐던 우리 단군의 신화이다.

이처럼 우리 겨레의 정서는 슬픔과 원한의 그것이 아니라 상생과 어울림의 그것이다. 말이라는 것이 사회 속의 부산물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말이 어울림의 말이라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이다. 나눔, 마을, 두레, 누리, 애오라지, 가시버시, 동무와 같이 어울림을 나타내는 말들이 특히 순우리말로 발달했다는 게 그런 사실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어떤 선생은 ‘내일’이 없음을 탓하며 겨레말을 깎아내리기도 했다. 겨레말에 ‘내일’이라는 것이 없던가? 아니다, 지금은 비록 잘 쓰이지 않지만 ‘올제’가 있고, 조금 양보하자면 ‘하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내일 보다 더 먼 미래를 뜻하는 모레와 글피가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아름다운 우리 겨레의 말들은 사라지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자꾸만 자꾸만 몽니난 마음을 다스려 보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쉬 달래지지 않는다.

거시기 하나로도 충분했던 어울림, 그런 말은, 말들의 잔치는 이제 아주 멀어진 것일까.



조현용

소설가.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고려대 문예창작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소고>로 당선되고 작품집으로 <파도는 잠들지 않는다>와 <햇볕아래 출추는 납작거북이>가 있다.

겨레말큰사전 제35호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겨레의 창 · 겨레말 편찬 현장 · 말에 얽힌 이야기 · 겨레말 살이

■ 겨레말 살이

3개 국어를 구사하는 사할린 동포 2세대

남혜경 / 사할린국립대학 교수

- 오바상(아주머니, 일본어),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몸은 좀 어때요?
- 일 없어(괜찮아, 북한말). 그래 돈벌이는 좀 어때?
- 요새는 좀 바빠요(힘들어요, 북한말). 마가진(상점, 러시아어)이 하도 많이 생겨서 그런지 손님이 영 줄었어요.

사할린주의 주도(州都) 유지노사할린스크시 재래시장에서 사할린동포 2세 간에 주고 받는 인사말이다. 3개국 언어로 대화가 오고 간다. 이곳 동포들이 모국어로 대화 할 때는 대체로 이런 식이다.



▲ 사할린 동포들이 모여 대화하는 모습

사할린에 살고 있는 3만 여명의 동포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한반도 남부에서 모집이나 강제징용으로 오거나, 혹은 해방 직후 북한에서 파견되었다가 현지에 남은 북한 출신 어장 노동자들의 자녀들이다. 한반도에서 태어나 자란 1세대들은 거의 사망했고 사할린이 일본령일 때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해방 후 러시아령이 된 이후에 태어난 2, 3세가 동포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련시대에는 한국어 교육은 물론 한국어 사용도 금지되었던 탓에 젊은 세대들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한국어는 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동포 가정에서도 부모 자녀 간에 러시아어로 대화를 한다.

동포들 중에 모국어를 가장 잘 구사하는 사람들은 50 - 60대의 2세대들이다. 이들 간에 모국어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모국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1세인 부모들이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한 덕분이기도 하고 또 해방 직후 귀국준비 차원에서 개설되었던 조선학교에서 모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모국어로 된 출판물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1세들의 지식수준은 매우 낮았고 2세대도 제대로 된 모국어 교육을 받지 못해 모국어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의 어휘는 가족, 친구 간에 오고가는 일상회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모국어를 구사할 때 추상적인 단어는 러시아어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겨레말 조사는 동포들 간의 대화 속에서 고유의 말을 좁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언어생활의 특징을 보면, 경상도 억양으로 경상도나 북한 사투리를 구사하면서 군데군데 일본어나 러시아어 단어를 끼어 넣어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언어적 습관은 과거 이들이 걸어온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경상도 출신의 1세대들이 많았던 점, 해방 후 남한과는 교류가 단절되고 2세대들은 북한 교과서로 북한 출신 교사들에게서 모국어 교육을 받은 점, 또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일본어 사용을 강요당했던 경험들이 언어에 축약되어 있다. 이들은 모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3개 국어를 구사하지만 어느 언어도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것에 열등감과 슬픔을 느낀다.

현재까지 조사된 말 중에서 현지의 특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어휘를 몇 가지 소개해 보자.

"옥주 가시나 부모들하고 우리하고 동상간 놀았지. 주로 고향쟁이들끼리 동상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장백했어. 큰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서로 돕고 살았어." (동포 2세대들 간 대화 속에서)

'동상간 놀다'란 의형제를 맺었다는 의미이고, '고향쟁이'는 동향인, '장백'은 말형을 의미한다. 모국의 부모형제들과 편지도 주고받지 못하는 외로운 타향살이를 이겨내기 위해 가까운 이들이 형제의 연을 맺어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1세대들은 러시아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을 '해방떡'이라고 불렀다. 이는 사할린 땅의 새 주인이 되어 대륙에서 건너온 러시아인들을 동포들이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 외에 모국어의 의미가 축소되어 사용되는 예로는 '잔치'가 있다. 사할린동포사회 내에서 잔치는 '결혼식 또는 결혼 피로연'을 가르킨다. 돌 잔치나 환갑연의 경우는 잔치라는 말을 빼고 단순히 '돌한다, 환갑한다'라고 한다. 러시아어에서 유래된 대표적인 어휘로는 동사 '놀다'와 형용사 '날카롭다'가 있다. "그 배우 차-암 잘 논다"는 말은 '연기를 잘 한다'는 의미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날카롭게 서있다'라고 표현한다. 또 이브(eve)를 '전야(前夜)'로, '산타클로스'를 '추위할아버지'로 번역해 사용하는 등 외래어 기피 현상도 찾아 볼 수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한국을 방문한 동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은 한국어에 외래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우리를 반성하게 하는 지적이라고 본다.

최근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할린동포사회의 교유성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에 있다. 언어 생활도 물론 그렇다. 이러한 점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겨레말큰사전》 해외 우리말 조사 사업은 매우 절실하고 의의가 큰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남혜경

교육학 박사, 재외한인 연구자.
2006년 9월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 파견교수로 사할린국립대학 한국어과에서 한국어, 한국 역사, 문화 등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겨레말큰사전》 사할린 지역 우리말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